



양봉협회 기자 간담회 실시

전문기자들에게 양봉산업 알리기
언론 관심 유도로 정책 마련의 배경 조성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은 지난 6월9일 협회 회의실에서 양봉 전문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양봉산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배경수 회장은 올해 아카시아 벌꿀 작황이 고온현상과 같은 이상기온으로 2004년도의 최대 흉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양봉농가의 생산성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문제점이 점점 더 심각해 지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KBS 소비자 고발 '벌꿀의 진실'이란 내용이 방영되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어 여러모로 힘든 상반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경수 회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벌꿀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벌꿀 제품내 사양꿀 표시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제는 사양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천연꿀과 차등화해서 판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양봉산업이 농림수산 식품부에 한 계로 인정된데 이어 ‘29개 대표품목’의 하나로 육성된다며 이를 통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양봉자조금을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봉**



인터뷰 - 배 경 수 한국양봉협회장

“아카시꿀 흥작, 밀원수 보급확대 시급”

“올해 양봉업계는 2004년 최대 흥작과 비슷한 수준의 아카시꿀 흥작으로 인해 농가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회를 개최하고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배경수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카시나무의 황화현상(잎이 노랗게 말라죽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올해 어느 때보다 흥작을 기대했지만 5월초부터 30℃를 오르내리는 고온 현상으로 아카시 꽃이 일찍 낙화되고 꿀 분비량까지 저조한 상황이다. 아카시 꿀은 25~27℃가 제일 적당한 기온인데 30℃가 넘었기 때문에 꿀이 생성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배 회장은 “가을중 일부 나타나는 아카시나무 황화현상이 재발이 미쳐 끝나기 전인 5월 중순 이후 발생했다”며 “지난 2004년 이후 점차 나아지는 듯 했던 아카시나무 황화현상이 기후 변화로 다시 심화돼 내년 아카시아 꿀 채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 회장은 “아카시나무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꿀 흥작을 이겨낼 방

법은 밀원수의 보급 확대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으로 떠오르고 있는 햇개나무와 음나무를 국유지 등에 식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운영이나 유재 등의 파종을 통해 농가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꿀 품질 강화방안과 관련해 배 회장은 “매년 사양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단골 매뉴로 보도 되고 있어 꿀산업에 대한 인식이 인종이겠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벌꿀 제품 내 사양꿀 표시 강화와 더불어 미표시 적발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인조꿀에 대해서는 원료인 사탕무의 이동 및 소비정보를 추적해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ky@annews.co.kr



〈농축유통 신문〉

양봉업계 아카시아꿀 흥작 위기

기상 악화로 생산량 지난해 40% 수준 전망
‘04년 최악사태 다시 직면... 대책마련 시급

양봉업계가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의 아카시아 꿀 흥작으로 인한 위기를 맞았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는 올해 아카시아 꿀 생산량이 5월 초 30℃이상의 고온현상과 황화현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생산량의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배경수 회장은 “아카시아 꿀의 흥작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만약 시장에 국내산 꿀이 부족할 경우 불법으로 들어오는 수입 꿀이 더욱 기세를 부리게 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봉업계는 이미 2004년 사상 유례없는 아카시아 꿀 흥작 사태를

맞았다. 올해 흥작의 규모는 2004년 당시와 유사한 규모인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는 근본적인 해결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흥작을 거둬하는 아카시아 벌꿀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견해다.

문제는 당장 내년과 아카시아 벌꿀 생산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밀원수 식재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거듭

되는 흥작으로 양봉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된다면 퍼지않아 양봉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차원에서 양봉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양꿀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 차별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향후 사양꿀 표기를 명확히 표시해 천연꿀과 사양꿀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는 규격을 식약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필 dk@chukjirens.co.kr

〈축산 신문〉

“올해 아카시 꿀 작황 2004년 흥작과 비슷”

배 경 수 한국양봉협회장



양봉업계가 2004년과 닮은 수준의 아카시꿀 흥작으로 농가들의 고통을 이겨 낼 길은 밀원수의 보급 확대 밖에 없다”고 밝히고 10~20년 뒤의 양봉산업을 위한 장기 투자로 대책 마련으로 각광받고 있는 햇개 나무와 음나무를 국유지 등에 식재하고, 내장 사탕 등과 연계한 정부의 지원책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농민활동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국에서는 “경쟁자 급 지원 및 홍보책(책)이 생산되는 1년전부터 저온영양이나 유해 곰팡이 파종을 통해 농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농민활동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국에서는 “경쟁자 급 지원 및 홍보책(책)이 생산되는 1년전부터 저온영양이나 유해 곰팡이 파종을 통해 농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농민활동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카시 대체 밀원 확보·정부 지원 절실 천연 꿀 보호 위해 사양·인조 꿀과 차별화 추진

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벌꿀 청와 및 품질 강화와 관련하여 배경수 회장은 “매년 사양꿀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의 단골매뉴로 오르내리면서 꿀 산업 자체가 몰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회는 천연꿀로 등급 판매되는 사양꿀을 제

도원으로 끌어 들어 농가 및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배회장은 양봉협회와 농식품부, 식약청, 농림중

앙화 등 과 일제 자율적으로 사양 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

이라고 평소를 동일하게 맞춰 생산되는 인조꿀에 대해서는 원료인 사탕무의 이동 및 소비정보를 추적해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견조율을 끝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민 기자
jrm@chmyung.co.kr

〈축산경제 신문〉